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정서적 상태, 소셜 미디어 이용 그리고 남한생활 만족도*

민 희**

요약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발전 및 안녕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심리적 자원이 결여된 개인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수단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주목한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폐쇄적인 사회 연결망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이들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그 속에서 관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정서적 상태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이용이 남한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효과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조건일 때 더욱 크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불안감 수준이 높을 때 남한생활 만족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비교한다. 분석 결과 다소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불안감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 비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지만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소셜 미디어,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불안감, 사회적 연결망, 남한생활 만족도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Their Emotional States, Social Media Use, and Life Satisfaction

Min, Hee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social media influences individual's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Social media is discussed as an effective tool when individuals lacking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re trying to expand their social networks.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media us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in general, have closed social media network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is study trie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 of social media use on North Korean defectors' satisfaction with our societ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use of social media influences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in South Korea at different levels of their emotional states. This study explor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and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in South Korea varies based upon the degree of self-esteem and anxiety. This study expects that social media might provide greater benefits for those who are experiencing low self-esteem and high anxiety.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s the same analysis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n compares its results with the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in South Korea was greater for those with high anxiety than for those with low anxiety. Meanwhile, the impact was greater for those with high self-esteem than for those with low self-esteem.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 social media, social adaptation, self-esteem, anxiety, social network, satisfaction with Korean life

2018년 4월 2일 접수, 2018년 4월 10일 심사, 2018년 4월 30일 게재 확정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5063)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mhmkkr@khu.ac.kr)

I. 서론

뉴미디어로 등장한 인터넷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스마트 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소셜 미디어 역시 그렇다. 3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68%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카카오톡(KakaoTalk)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는 인터넷 이용자의 95%나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학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개인의 사회적 발전(Social Development)이나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심리적 자원이 결여된 개인이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자 할 때 소셜 미디어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카카오톡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친분이 없는 사람과도 쉽게 교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유정·조수선, 2012; 민희·윤성이, 2015; 홍일유 외, 2014). 나아가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들은 정서적 유대감 혹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rgh & Mckenna, 2004; Bargh, et al., 2002; 금희조, 2011; 김명아, 2007).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연구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다(Oh, et al., 2014). 여기에는 크게 강화 가설(Rich get Richer Hypothesis)과 사회보상 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Gross, et al., 2002; Karut, et al., 2002; McCord, et al., 2014).

강화 가설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이미 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개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배경이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개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Kraut, et al., 2002). 반면 사회보상 가설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약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개인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경우 소셜 미디어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약하거나 사회적 불안감(Social Anxiety)이 높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느끼는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을 준다(Bargh & Mckenna, 2004; Ellison, et al., 2007; McCord, et al., 2014; Steinfield, et al., 2008).

그런데 기존의 강화 가설과 사회보상 가설은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이들 논의는 사회구조적 수준의 자극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간과한다. 예컨대, 소수자 혹은 이주자와 같이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이미 특정한 방식의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개인들의 경우 그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그 효과는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즉 기존의 강화 가설과 사회보상 가설은 개인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자로 가정해 놓은 채 개인적 수준에서의 미디어 이용과 이에 수반되는 결과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시각은 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구조적 조건 및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분단 현실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그룹들이 사회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는 방식 또한 각각 다르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효과를 논의할 때 상호배타적인 관계로서 강화 가설과 사회보상 가설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가설을 지지하는 특수한 상황과 맥락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소셜

미디어와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가 더욱 풍부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소수자 혹은 이주자의 관점에서 다루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분리와 배제를 극복하는 대상으로 다뤄진다(윤인진, 2007). 최근 관련 연구에서 등장하는 ‘북한이주민’이라는 호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김주삼, 2004; 엄태완, 2016; 윤인진, 2007; 이기영, 2002; 임인숙·윤인진, 2008; 정병호, 2014).

그런데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살펴볼 때 이들의 사회적응 과정은 다른 이주자 집단과 상이한 면면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그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정병호, 2004, 2014; 최정화, 2016). 남한 주민들과 친분을 유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동료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차별적인 교제를 더욱 선호한다(유지웅, 2007). 또는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가족에 한정시키기도 한다(엄유식·김여진, 2011).

요컨대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소셜 미디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별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시도는 소셜 미디어가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풍부하고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정서적 자원이 결핍되었을 때 소셜 미디어

가 발휘하는 효과에 중점을 둔다. 둘째, 남한사회 내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연결망이 어떠한 특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 부분에서는 정서적 상태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과 남한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불안감이 소셜 미디어 이용 변수와 결합하면서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일반인에게도 적용하여 시도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 간 관계의 차별적인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II. 사회적응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

사회적인 의미에서 적응(Adaptation)은 한 개인이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한다(윤인진, 2007: 116).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응은 개인이 소속된 환경에서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해가는 능력이다(Berry & Sam, 1997; 조춘범·한기주, 2017; 이금순 외, 2003).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소속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삶의 안정을 찾는 과정인 것이다(이기영, 2002; 조춘범·한기주, 2017). 이렇게 볼 때 한 개인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바로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응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논의된다(유시연, 2001; 박윤숙, 2006; 배임호·양영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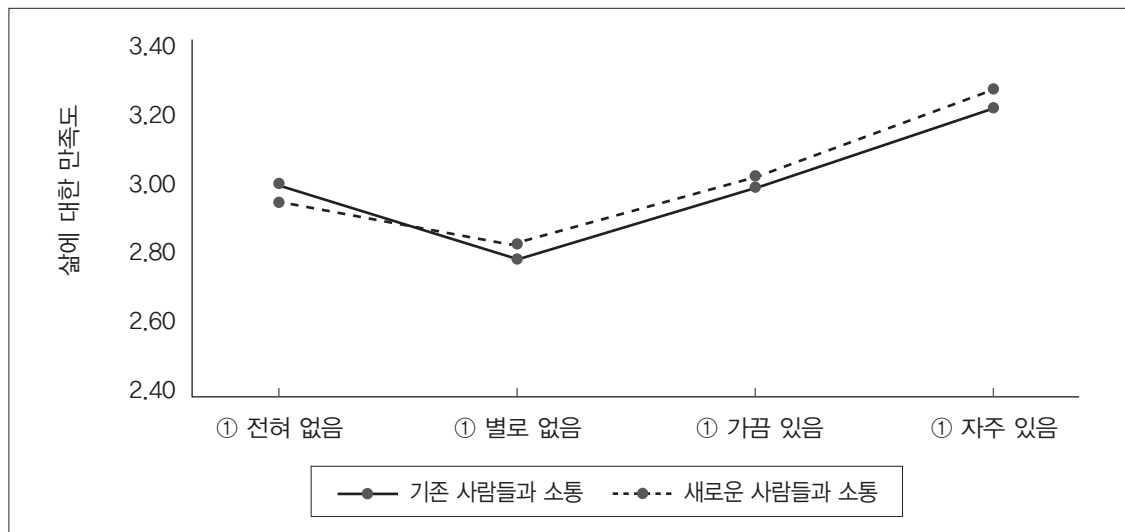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응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적·사회적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Steinfeld, et al., 2008). 이는 이용자에게 보다 쉬운 자아노출을 돕고 사회적 상호작용

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Bargh, et al., 2002; Valkenburg & Peter, 2009). 또한 소셜 미디어의 정보적·사회적 기능이 사회 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미옥·이경탁, 2015; 금희조, 2011). 온라인 기반의 결속형 및 연결형 사회 자본은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연결망을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Oh, et al., 2014; 권미옥·이경탁, 2015; 전대성 외, 2017).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기존 사람들 및 새로운 사람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 훨씬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학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정서적 지원이 취약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불안감이 강한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응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시한다. 첫째,

실제 소셜 미디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이 다양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스테인필드와 그의 동료들(Steinfeld, et al., 2008)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자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비해 연결형 사회 자본에 미치는 페이스북 이용 강도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엘리슨과 그의 동료들(Ellison, et al., 2007) 역시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페이스북 이용과 연결형 사회 자본 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 사이에서 훨씬 강하다는 것을 밝혔다.

자아존중감의 결핍과 소셜 미디어 이용의 친화적 관계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자아표현(Self-presentation) 유형을 통해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대인 관계를 확장하는 데 동기적 효과(Motivational Effect)를 발휘한다(Shim & Whang, 2010). 즉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자아 증진적 정향(Self-enhancing Orientation)을 보이고, 반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16)의 데이터를 연구자가 가공한 것임
 ** 기존 사람들과 소통,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
 (p=.000***, ***p<.001)

<그림 1> 사회적 소통 방식, 소셜 미디어 그리고 남한생활 만족도

은 자아 보호적 정향(Self-protective Orientation)을 보인다(Baumeister, et al., 1989: 553-554). 전자의 경우 위협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 후자의 경우 위협을 감당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보다 공격적이고 야심 있는 자아표현 전략을 펴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커뮤니케이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O'leary, 1990).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실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따라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커뮤니케이션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별 특성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특정한 미디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비해 면대면(face to face) 보다도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접촉을 더욱 선호한다(Joinson, 2004). 이러한 효과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거절의 위협이 클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소셜 미디어는 불안감이 강한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cCord, et al., 2014). 예컨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강한 불안감을 느끼는 개인은 페이스북을 불안감을 덜 유발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Weidman, et al., 2012). 페이스북이 잠재적 연결망(Latent Ti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커뮤니케이션을 처음 시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때문이다(Haythornthwaite, 2005). 특히 이러한 정서적 불안감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자가 이주국가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자들은 이주자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 왔다(Moon & Park, 2007; 박노일 외, 2011). 미디어 의존 이론(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에 따르면 미디어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

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all-Rokeach & DeFleur, 1976). 사람들은 외부에 대한 위협이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데 이 때 미디어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Ball-Rokeach & Loges, 1996; Gao & Gudykunst, 1990; 강태영 외, 2011).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고양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생활에 이른다(Jeffres, et al., 1987; Rothenbuhler, et al., 1996).

실제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들의 경우 현지 미디어 이용이 높을수록 미국 사회에서의 적응이 수월했다(Moon et al., 2003). 미디어 이용 패턴은 이주 노동자들의 직장 만족도와 새로운 사회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박노일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미디어 이용량이 직장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TV시청시간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직장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인터넷은 이주자의 정착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Caidi & Allard, 2005). 앞의 연구에서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비중 있게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 이용은 그들의 임금수준, 한국어능력, 한국체류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인식과 재방문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노일 외, 2011: 56).

Ⅲ.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 폐쇄적인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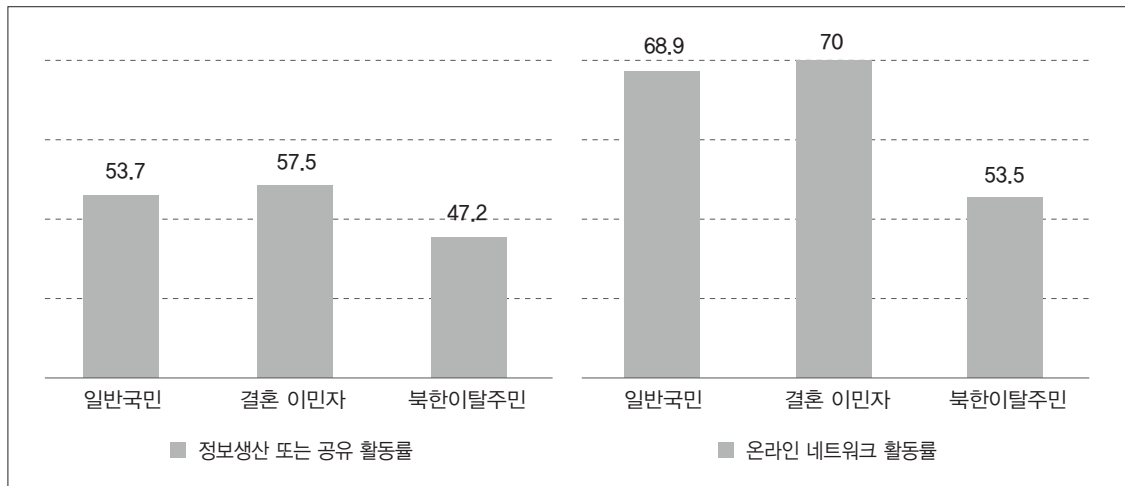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떠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킨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1항).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사회적응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보호 등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최근 개선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지표들이 이를 방증한다. 2017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1.2%로 2016년 57.9%에 비해 3.3% 증가했다(남북하나재단, 2018). 또한 고용률은 56.9%로 2013년 51.4%, 2014년 53.1%에 이어 상승세를 기록했고, 월 평균 소득은 2014년 약 147만원에서 2017년 약 178만원으로 늘었다(남북하나재단, 2018).

그러나 이러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다. 남북하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토로하면서 그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 및 차별'(31.7%)과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24%)를 꼽았다(남북하나재단, 2016).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박상욱, 2017),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피해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사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김영순, 2014).

일반적으로 이주자의 사회적응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에 따라 좌우된다(염유식·김여진, 2011; 최정호·박선미, 201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자는 이주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또한 그 과정에서 겪는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한다(정병호, 2004). 이들은 사회단체 및 종교기관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자 하며 이를 넓히는 데 적극적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내에서의 사회연결망 형성 방식은 기존의 이주자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는 폐쇄적인 연결망에 가까운데 이것이 사회적응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은 종교 활동 외에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과 단체 활동에 좀처럼 참여하지 않는다. 남북하나재단의 조사(2018)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단체 참여 경험은 20.6%에 그친다.¹⁾ 설사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고향친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16)의 데이터를 연구자가 가공한 것임

〈그림 2〉 일반인,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온라인 활동률(%) 비교

1) 한편 일반국민의 지난 1년간 사회단체 참여 경험은 49.7%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단체 참여 경험은 일반국민에 비해 29.1%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18).

구, 하나원 등에서 만들어진 관계에 한정한다(최정화, 2016). 이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활동에 미미한 참여를 보인다(윤인진, 2007).

이러한 양상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과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에서 일반인과 이주자 집단 중 하나인 결혼 이민자에 비해 저조한 활동률을 보여준다.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은 직접 만든 정보나 타인이 만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 여부를 의미하는데, <그림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생산이나 공유 활동률은 47.2%로 일반국민(53.7%)과 결혼 이민자(57.5%)보다 각각 6.5%, 10.3%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 여부를 보여주는데 이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활동률이 일반국민과 결혼 이민자에 비해 저조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53.3%로 일반국민(68.9%), 결혼 이민자(70.0%)보다 각각 15.4%, 17%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참조).

앞에서 언급한 결혼 이민자와 달리²⁾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폐쇄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고수한다(최정호·박선미, 2013).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냉전이데올로기가 이들을 문화적·제도적으로 구분해낸다(김성경, 2011). 그리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시선을 고착화시킨다. 북한이탈주민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동포이지만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주민으로 볼 때 외국인보다도 사회적 거리가 먼 남인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가 그들에 대해 편견을 갖는다고 여기면서 동료 북한이탈주민들끼리만 더욱 빈번하게 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적응 과정에서 우리 집단에 속하지 못한 채 그들 집단으로

존재하고자 하며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은 강화된다(유지웅, 2007: 160-162).

더욱 주목할 점은 동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심 또한 강하다는 것이다. 보통 북한이탈주민은 동료 북한이탈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김수암 외(2016)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북한출신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4%나 차지했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김영순(2014)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일대의 북한이탈주민 집단거주 지역을 참여 관찰한 후 북한이탈주민이 구성원 간 접촉을 꺼려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의 신분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고향을 속이기도 한다(김영순, 2014: 138). 서울시 양천구 내 임대아파트에서 10년 이상 1,000명 단위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집단 역시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정병호, 2004).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행태를 보이면서(정병호, 2004: 75), 오히려 가족 중심의 소극적인 사회연결망을 선호한다(염유식·김여진, 2011).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선택 시 그 어떤 조건보다 사회적 연결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정호·박선미(2013)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중 평택시와 남양주시를 비교 관찰했는데, 평택시가 남양주시에 비해 고용시장과 주택공급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IV.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상태, 소셜 미디어 이용 그리고 남한생활 만족도

2) 한편, 소수자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전영평, 2010: 111-115). 이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권력적 소수자, 결혼 이주자는 문화적 소수자에 해당된다. 권력적 소수자는 지배 권력에 의해 차별 받는 사람들을, 문화적 소수자는 인종, 종교, 가치관 등의 차이로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남한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자아존중감 및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불안감이 낮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불안감이 강한 경우라도 소셜 미디어 이용을 통해 사회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 소셜 미디어 효과는 사회보상 가설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효과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연결감은 폐쇄성을 띠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보상 가설이 유효한지 알아본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분석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 이용이 어떠한 맥락적 함의를 지니는지 밝히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6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조사기간: 2016년 9~12월). 이는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이다. 조사 모집단은 일반인의 경우 2016년 8월 1일 기준 전국의 가구 내 상주하는 가구원 7,000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국의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하나원 퇴소자 기준) 700명이다.

1. 표본과 측정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약 71%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3%가 20~30대이다. 이 중 20대가 42.7%, 30대가 30.3%를 차지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여성비율이 79%나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총 1,418명 중 1,116명)(남북하나재단, 2017). 연령은 2017년 6월 기준 20대 28%, 30대 29%, 40대 17%, 50대 5%, 60대 이상이 4%의 분포를 보인다(남북하나재단,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과대 대표된 경향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응답자의 평균 가구소득은 일반인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100만원 미만 26.4%, 100-199만원 34.4%, 200만원 이상이 39.2%를 차지했다. 남한에서의 교육수준은 중졸 20.1%, 고졸 27%, 대졸 이상이 1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이용 정도는 최근 일주일 이내 이용한 경험이 65%로 가장 높았으나 컴퓨터를 이용해 본적이 없는 경우도 16.7%나 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40대 이상이 58.6%를 차지했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각각 15%, 20.3%, 23.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35.2%, 300-399만원이 28.4%, 200-299만원 이상이 18.2%를 차지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 26.9%, 중졸 16.9%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인터넷 이용은 응답자의 83.3%가 최근 일주일 이내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컴퓨터를 이용해 본적이 없는 경우는 12.7%를 차지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범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소셜 미디어 이용' 변수의 경우 모바일 기반 이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 문항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A: 트위터, 페이스북 등, B: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를 활용하였다. 그 다음 응답자별 A 문항과 B문항에 해당하는 소셜 미디어 이용 정도의 합을 구한 후 그 값을 '소셜 미디어 이용' 변수로 코딩하였다(<표 2> 참조). <표 2>는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 정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반인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표 1〉 기술통계: 일반인 vs. 북한이탈주민

주요 변수	일반인 (N=7,000)	북한이탈주민 (N=698)
	%(N)	%(N)
성별		
남성	49.9 (3,492)	29.0 (203)
여성	50.1 (3,508)	71.0 (497)
연령		
19세 이하	13.9 (972)	-
20대(북한이탈주민 20대 이하)	13.4 (939)	42.7 (299)
30대	14.1 (989)	30.3 (212)
40대	15.0 (1,051)	17.1 (120)
50대(북한이탈주민 50대 이상)	20.3 (1,630)	9.9 (69)
60대 이상	23.3 (1,630)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0 (416)	26.4 (181)
100-199만원	12.3 (852)	34.4 (236)
200-299만원(북한이탈주민 200만원 이상)	18.2 (1,264)	39.2 (269)
300-399만원	28.4 (1,971)	-
400만원 이상	35.2 (2,446)	-
최종학력(남한)		
초등 졸 이하	14.8 (1,033)	10.9 (74)
중졸	16.9 (1,183)	20.1 (136)
고졸	41.5 (2,903)	27.1 (183)
대졸 이상	26.9 (1,881)	13.0 (88)
해당사항 없음	-	28.8 (195)
인터넷 이용		
최근 일주일 이내	83.3 (5,831)	65.0 (455)
일주일 ~ 한 달 이내	2.5 (173)	7.6 (53)
컴퓨터를 이용한지 한 달 넘음	1.5 (108)	10.7 (75)
컴퓨터를 이용해 본적 없음	12.7 (888)	16.7 (117)

소셜 미디어를 더욱 자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값은 각각 4.38, 3.80을 기록했다. 한편,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일반인=1.90, 북한이탈주민=1.68)에 비해 카카오톡, 네이버온 등과 같은 메신저(일반인=2.48, 북한이탈주민=2.11)를 더욱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정서적 상태는 심리적 안녕이나 사회적응과

관계가 깊다. 적극적인 성격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다(박미석·이종남, 1999; 이용화, 200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소셜 미디어가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표 2〉 설문 문항과 척도: 소셜 미디어 이용

설문 문항과 척도	일반인 (N=5,959)	북한이탈주민 (N=46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셜 미디어 이용 (Mobile 기준) (A+B)	4.38 (1.57)	3.80 (1.65)
A: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등	1.90 (1.08)	1.68 (1.01)
B: 네이트온, 스카이프, 네이버라인, 카카오톡, 마이피플, 구글토크 등	2.48 (0.78)	2.11 (0.96)

*소셜 미디어 이용: 0=전혀 이용 안한다, 6=자주 이용 한다

**A, B: 0=전혀 이용 안한다, 3=자주 이용 한다

〈표 3〉 설문 문항과 척도: 자아존중감 및 불안감

설문 문항과 척도	일반인 (N=7,000)	북한이탈주민 (N=69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척도	3.35 (0.55)	3.26 (0.59)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40 (0.59)	3.30 (0.6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20 (0.76)	3.11 (0.7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45 (0.62)	3.36 (0.68)
불안감 척도	1.53 (0.53)	1.66 (0.64)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57 (0.63)	1.70 (0.71)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1.52 (0.62)	1.63 (0.70)
불안한 상태에 있다	1.50 (0.60)	1.66 (0.73)

Cronbach's alpha [자아존중감] 일반인=.772, 북한이탈주민=.767

[불안감] 일반인=.827, 북한이탈주민=.868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변수를 포함시켰다. 〈표 3〉은 정서적 상태로서 자아존중감과 불안감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이다. 자아존중감 측정은 3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³⁾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문항이 그것이다. 불안감 측정 역시 3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불안한 상태에 있다’

문항이 그것이다. 각각의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불안감에 해당하는 문항별 값을 모두 합한 후 평균값을 산출해 정서적 상태별 수치를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측정값이 클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불안감은 측정값이 클수록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 응답자는 일반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일반인은 평균 3.35점을, 북한이탈주민은 3.26을, 불안감의 경우 일반인은 평균 1.53점

3) 설문에서 이용된 자아존중감 문항은 로젠버그(Rosenberg, 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Scale)를 따른 것이다.

〈표 4〉 설문 문항과 척도: 삶에 대한 만족도

설문 문항과 척도	일반인 (N=7,000)	북한이탈주민 (N=698)
	%(N)	%(N)
전혀 만족하지 않음	0.8 (59)	1.5 (10)
별로 만족하지 않은 편	17.3 (1,213)	21.8 (147)
다소 만족하는 편	70.9 (4,963)	63.9 (431)
매우 만족하는 편	10.9 (765)	12.8 (86)

을,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인 보다 0.13점 높은 1.66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남한생활 만족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설문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사회 적응도를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 설문문항은 “귀하는 대체로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중 76.7%는 대체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이에 반해 23.3%는 불만족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인의 경우 응답자의 81.8%가 대체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하는 경우는 18.1%이다.

2. 분석 결과

이 부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 이용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모델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한생활 만족도에 대한 소셜 미디어 효과가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과 정서적 상태 간의 교차항인 [소셜 미디어 이용 \times 자아존중감]과 [소셜 미디어 이용 \times 불안감] 변수를 생성하였다. 여기서 자아존중감과 불안감은 소셜 미디어 이용과 남한생활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절 변수(Moderator Variable)로서 기능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와 동일한 모델을 일반인

에게도 적용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델에 사회경제적 배경(SES) 변수를 포함시켰다.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영향력 있는 변수로 논의된다(박윤숙, 2006; 이재민·황선영, 2008; 정진화 외, 2013). 거주기간 변수 또한 고려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자의 사회적응은 새로운 사회에 거주기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박윤숙·윤인진, 2007; 윤인진, 2000; 김창권, 2007; 유시는 외, 2008).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적응에 필요한 경험이 증가한다(손상희 외, 2014). 그런데 본 연구의 회귀분석모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기간 변수를 제외하였다. 이는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의 분석결과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회귀분석모델에 거주기간 변수를 포함시킨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기간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표 5〉는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분석 모델이다. 분석 결과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일반인 대상 회귀분석(모델 1)에 초점을 맞춰 보

〈표 5〉 정서적 상태, 소셜 미디어 이용 그리고 (남한)생활 만족도: 일반인 vs. 북한이탈주민

	일반인(N=5,959)		북한이탈주민(N=462)	
	모델 1		모델 2	
	B(SE)	β	B(SE)	β
(상수)	2,170 (.074)		2,910 (.265)	
성별	-.008 (.013)	-.008	.029 (.055)	.023
나이	-.023 (.004)	-.071***	-.016 (.029)	-.025
학력	-.010 (.008)	-.017	-.024 (.021)	-.052
소득	.024 (.006)	.046***	-.109 (.035)	-.144*
소셜 미디어 이용	.030 (.004)	.090***	.053 (.016)	.150*
자아존중감	.092 (.005)	.272***	.060 (.018)	.173*
불안감	-.054 (.005)	-.155***	-.095 (.016)	-.294***
소셜 미디어 이용X자아존중감	.006 (.007)	.011	.053 (.029)	.092 †
소셜 미디어 이용X불안감	.000 (.007)	.001	.060 (.029)	.103*
수정된 R제곱	.175		.178	
(d, F)	(9, 141,049) ***		(9, 12,086) ***	

*** p<0.001, ** p<0.01, * p<0.05, † p<0.1

면, 소셜 미디어 이용은 삶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다(β=.090, p<0.001).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역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β=.272, p<0.001), 불안감이 낮을수록(β=-.155, p<0.001)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다. 이번에는 교차항 [소셜 미디어 이용X자아존중감]과 [소셜 미디어 이용X불안감]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두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일반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정서적 상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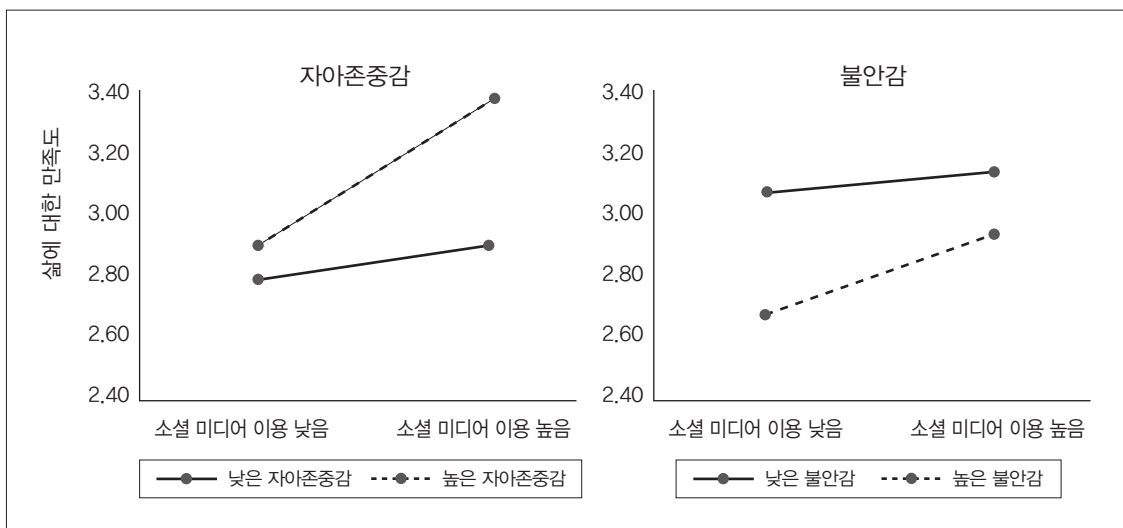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회귀분석(모델 2)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셜 미디어 이용은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다(β=.150, p<0.05).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역시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173$, $p<0.05$), 불안감이 낮을수록($\beta=-.294$, $p<0.001$)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다. 그런데 교차항 [소셜 미디어 이용 \times 자아존중감]과 [소셜 미디어 이용 \times 불안감] 변수는 일반인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두 변수는 남한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은 소셜 미디어 이용 변수와 상호작용하면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켰다($\beta=.093$, $p<0.1$). 불안감이 강한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자주 이용할수록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경우 소셜 미디어 효과는 사회보상 가설을 지지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은 소셜 미디어 이용 변수와 상호작용하면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beta=.095$, $p<0.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자주 이용할수록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와 남한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강화 가설을 지지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셜 미디어가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불안감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앞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남한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불안감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림 3>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남한생활 만족도를 예측하는 소셜 미디어 이용과 정서적 상태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각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수준별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크기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비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 이용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불안감은 불안감이 큰 경우가 불안감이 낮은 경우에 비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 이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가 개인의 사회적 발전 및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기존 논의는 강화 가설과 사회보상 가설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



<그림 3>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수준별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있거나 혹은 그러한 경험에 노출된 개인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는 소셜 미디어와 사회적응의 관계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우리가 강화 가설이 옳은가, 사회보상 가설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에 집중할 의무감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이는 곧 소셜 미디어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할 때 다양한 변수에 대한 관심과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여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폐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수준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이용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양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이 각각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무는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수준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이용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상태는 남한생활 만족도에 대한 소셜 미디어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와 남한생활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불안감 수준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불안감의 경우 불안감이 큰 사람이 약한 사람에 비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효과가 더 컸으나,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효과가 더 컸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 효과에 대한 논의는 강화 가설과 사회보상 가설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은 자기표현의 욕구와 관계가 깊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적

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기존 논의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오히려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이하나·양승목, 201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이미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활동에 능동적이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직접적인 대면관계에서 겪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유현욱·홍혜영, 2015). 이들은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데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해 나간다(이하나·양승목, 2017).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킨다(Ellison, et al., 2007; Steinfield, et al., 2008).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보통 사회적응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이용 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도 낮은 사람에게 더욱 클 것이라고 기대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예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맥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사회 연결망이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최소한의 연결망을 유지하고자 하는 습성을 보인다. 소극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추구하는 이들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이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염유식·김여진, 2011).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단의 현실에서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로 인해 그리고 그들 스스로 사회와 관계 짓고자 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경계 짓기로 인해 표출되지 못했던 자아 존중감이 온라인에서의 경계 넘기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태영·황유선·강경미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 텔레비전 시청 행위와 사회 적응.” 『한국언론학보』, 55(6): 82-102.
- 권미옥·이경탁 (2015).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이 사회자본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8(5): 1485-1503.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한국언론학보』, 55(4): 162-186.
- 김명아 (2007). “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11: 25-59.
- 김성경 (2011).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아태연구』, 18(3): 1-21.
- 김수암·김화순·민태은·박주화 (2016).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 김영순 (2014). “인천 논현동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 『로컬리티 인문학』, 12: 121-154.
- 김유정·조수선 (2012). “미디어 영역에서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정보화정책』, 19(4): 3-26.
- 김주삼 (2004). “북한 이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통일전략』, 4(2): 165-191.
- 김창권 (200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경상논총』, 25(2): 15-39.
- 남북하나재단 (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민희·윤성이 (2015). “온라인 정치참여: 국내·외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22(2): 3-18.
- 박노일·정지연·한정호. (2011). “주한(駐韓)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이용이 직장만족도와 한국 인식 및 한국 재입국 의지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18: 41-71.
- 박미석·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17: 3-73.
- 박상욱 (2017). “최근 5년간 입북→재탈북 5명..국내 거주 탈북자 886명은 소재 불명.” 『중앙일보』, 9월 19일.
-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숙·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배미호·양영은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89-224.
- 손상희·정진화·김정은·박종욱 (2014).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5(3): 329-357.
- 엄태완 (2016).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1): 165-198.
- 염유식, 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45(2): 91-129.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윤인진 (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 지원방안.” 『아세아연구』, 50(2): 106-143.
- 유시연 (200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시은·엄진섭·윤덕룡·전우택 (2008).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7(2): 117-153.
- 유지웅 (200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통일문제 연구』, 19(1): 145-175.
- 유현욱·홍혜영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77-999.
- 이금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혜영·오승렬·최의철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재민·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6): 61-84.
- 이하나·양승목 (2017). “SNS 이용자 집단 구분과 예측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1(2): 5-40.
- 임인숙·윤인진 (2008). “북한 이주민의 성 역할 태도와 부부권력의 변화와 지속.” 『가족과 문화』, 20: 99-126.
- 전대성·김동욱·라니 헤이겐 (2017).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이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0(2): 65-88.
- 전영평 (2010).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0(1): 33-62.
- 정병호 (2014).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17(1): 49-100.
- 정진화·손상희·이주관 (201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과 취업.” 『통일정책연구』, 22(1): 267-296.
- 조춘범·한기주 (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정도의 차이와 남한사회 적응실태: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1): 271-292.
- 최정호·박선미 (201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 요인-경기도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71-85.
- 최정화 (2016). 『북한이탈청년들의 정체성 변화와 적응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6』.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홍일유·강동원·조휘형 (2014). 사회적 및 개인적 선행요인들이 SNS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1(1): 57-76.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all-Rokeach, Sandra J. & William E. Loges (1996). “Making choices: Media roles in the construction of value-choices.” In C. Seligman, J. M. Olson & M. P. Zanna (Eds.), *The psychology of values: The Ontario symposium*, 277-298. Mahwah, New Jersey: Erlbaum.
- Bargh, John A. & Katelyn YA McKenna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73-590.
- Bargh, J. A., McKenna, K. Y. & Fitzsimons, G. M. (2002). “Can you see the real me? Activation and expression of the true self on the Internet.”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33-48.
- Baumeister, Roy F., Dianne M. Tice & Debra G. Hutton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3): 547-579.
- Berry, John W. & David L. Sam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91-326.
- Caidi, Nadia. & Danielle Allard (2005). “Social inclusion of newcomers to Canada: An information problem?.”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7(3): 302-324.
-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 Gao, Ge & William B. Gudykunst (1990). “Uncertainty, anxiety,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3): 301-317.
- Gross, James J. (2002).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3): 281-291.
- Haythornthwaite, C. (2005). “Social networks and Internet connectivity effects.” 『Information, Community & Society』, 8(2): 125-147.
- Jeffres, Leo W., Jean Dobos & Mary Sweeney (1987). “Communication and commitment to community.” 『Communication Research』, 14(6): 619-643.
- Joinson, A. N. (2004). “Self-esteem, interpersonal risk, and preference for e-mail to face-to-face communica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7(4): 472-478.

-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 Crawford, A.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49-74.
- Moon, S., Kim, J. & McLeod, D. (2003). "The impact of mass media on the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Moon, S. & Park C. Y. (2007). "Media effects on acculturation and biculturalism: A cas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Koreatow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0(3): 319-343.
- McCord, B., Rodebaugh, T. L. & Levinson, C. A. (2014). Facebook: Social uses and anxie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4: 23-27.
- Oh, H. J., Ozkaya, E. & LaRose, R. (2014). "How does online social networking enhance life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s among online supportive interaction, affect, perceived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0: 69-78.
- O'leary, Ann (1990). "Stress, emotion, and human immune fun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8(3): 363-382.
- Rosenberg, Morris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Rothenbuhler, E. W., Muller, L. J., DeLaurell, R. & Ryu, C. R. (1996). "Communication, community attachment, and involve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445-466.
- Shim, H. J. & Hwang, Y.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blogging service and social capital among the early adopters of Twitt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5): 327-347.
- Steinfeld, C., Ellison, N. B. & Lampe, C. (2008). "Social capital, self-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434-445.
- Valkenburg, Patti M. & Jochen Peter (2009). "Social consequences of the Internet for adolescents: A decade of researc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1): 1-5.
- Weidman, A. C., Fernandez, K. C., Levinson, C. A., Augustine, A. A., Larsen, R. J. & Rodebaugh, T. L. (2012). "Compensatory internet use among individuals higher in social anxiety and its implications for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3): 191-195.